



계란생산계군 증가에 따른 약세권 예상

◆ 동향

4월들어 부활절 수요가 마감됨과 동시에 난가는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해 지속적으로 증가한 산란계사육수수로 과잉생산은 어느 정도 예고되었던 부분이였다. 4월간 난가는 3차례 하락세를 보이면서 수도권 특란은 개당 114원(4/22기준)을 형성하고 있으며, 여전히 체화물량이 많은 상태를 보이고 있다. 봄철 꽃샘추위로 인한 작황부진으로 과채류 가격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형성하고 있어 계란수요를 신장시켰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워낙 생산물량이 크게 증가해 있어 이러한 반사이익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대형할인매장에서도 할인행사를 계획하고 있지 않아 체화량을 빠르게 해소시킬만한 요인이 없어 4월 난가는 원가이하의 시세로 마감될 전망이다.

◆ 자료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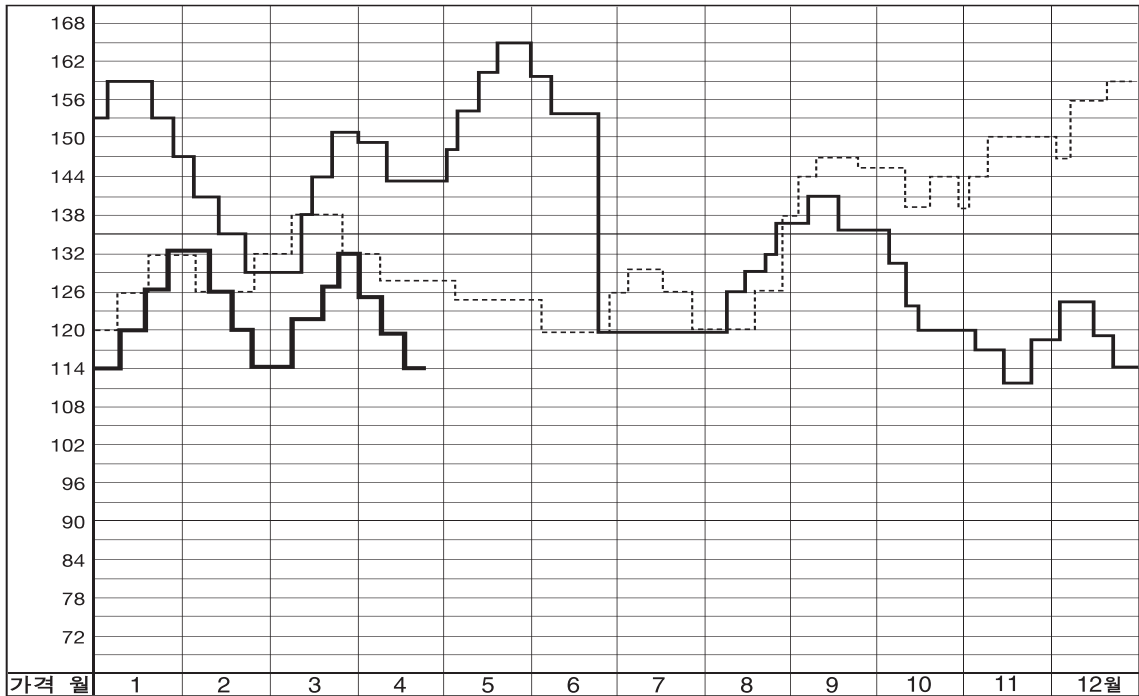
지난 3월 산란중계분양수는 71,396수로 전년대비 64.1% 증가하였다. 같은 달 산란실용계 판매수는 3,299천수로 전년대비 0.2%증가하였으며, 이로써 올해 1/4분기 총 실용계판매수는 8,207천수로 전년동기대비 9.6% 감소했다.

중계DB자료에 따르면 3월 산란중계사육수는 526천수로 전년대비 1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종란생산계군수는 437천수로 전년대비 9.3% 감소하였다.

지난 2월 산란노계도태수는 2,548천수로 전년대비 1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육수가 크게 증가해 눈에 띄는 감축효과를 보이고 있지 못하다. 난가가 약세권에 머물면서 산란실용계 거래 단가는 소폭 하락해 1,050~1,150원선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중추시세 또한 3,400~3,600원선으로 약보합세를 띄고 있다. 지난 3월 전국평균 특란가격은 1,215원(10개)으로 전년대비 8.9% 하락하였다.

◆ 전망

5월에도 난가가 빠르게 회복될 만한 요인이 없어 보인다. 봄철 나들이객이 증가하면서 계란수요도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신계군의 생산가담이 증가하면서 계란공급량은 전년대비 증가할 것으로 보여 난가상승세는 다소 힘들어 수 있겠다. 난가가 약세를 땀에 따라 5월 중 대형할인마트의 할인행사가 진행될 경우 체화물량을 소진시키면서 상승기반을 다질 것으로 판단되나, 근본적으로 과잉생산이 해결되지 않는 한 여름철 비수기에 접어들어 다시 한번 큰 진통을 겪을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하겠다. 따라서 무엇보다 생산량 감축을 위한 노계도태가 시급한 실정이다. 더욱이 기온이 상승함에 따른 계란보관일수가 줄어들면서 계란 덩핑거래가 증가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예년의 경우 여름 복경기 백세미 생산을 위한 산란계의 종란생산가담으로 식용란 공급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최근 삼계 비축물량이 늘고 있어, 예년보다는 덜하겠으나 5월 하반기 들어 수급상황의 변수로 작용하겠다.



※ 2009.6.22 계란가격 현실화 차원 D/C폭 30원 줄임

특란기준 계란가격(개당)

2008-- 2009- 2010 -

▶ 병아리·사료·계란생산(잠재력) 및 가격

월	연도	종 계 입식수 (수수)	실용계 생산수 (천수)	사료(천톤)		산란 실용계 (원)	서울 특란가격 (10개원)
				육추	산란		
1	2007	39,300	2,592	24.6	176.5	1,142	1,035
	2008	55,000	2,857	28.3	176.2	1,050	1,262
	2009	0	2,895	22.6	163.9	1,050	1,553
	2010	34,000	2,570	25.3	169.4	1,100	1,224
2	2007	25,600	2,188	23.7	157.1	1,150	1,025
	2008	35,928	2,787	26.9	169.8	1,100	1,287
	2009	48,300	2,894	20.1	144.5	1,050	1,374
	2010	33,896	2,338	23.9	156.4	1,150	1,246
3	2007	68,000	2,461	24.2	168.0	1,150	1,054
	2008	43,100	3,151	24.8	162.3	1,100	1,349
	2009	43,500	3,294	25.1	168.1	994	1,420
	2010	71,396	3,299			1,150	1,235
4	2007	62,500	2,581	25.7	158.9	1,150	867
	2008	0	3,469	29.6	170.2	1,100	1,283
	2009	109,368	2,808	27.2	164.5	917	1,455
	2010						
5	2007	15,000	2,454	28.4	172.8	1,094	936
	2008	91,100	3,460	27.7	149.3	1,122	1,237
	2009	0	2,519	26.5	157.5	850	1,597
	2010						
6	2007	0	2,194	25.6	150.1	1,050	891
	2008	95,500	3,046	28.3	145.8	1,100	1,202
	2009	71,300	2,956	26.8	156.2	892	1,448
	2010						

7	2007	30,500	2,486	26.3	148.3	1,022	824
	2008	60,500	3,077	29.3	146.7	1,100	1,255
	2009	29,700	3,202	25.9	156.9	928	1,200
	2010						
8	2007	49,300	2,493	24.0	153.9	1,000	973
	2008	79,000	2,985	27.0	138.9	1,069	1,245
	2009	60,800	3,154	23.8	156.6	983	1,279
	2010						
9	2007	96,400	2,494	24.2	157.2	1,000	1,110
	2008	18,000	2,682	28.5	156.8	1,050	1,468
	2009	56,000	2,598	27.1	173.3	1,041	1,386
	2010						
10	2007	23,200	3,039	27.3	164.2	1,028	1,069
	2008	39,000	2,473	29.4	164.9	1,050	1,430
	2009	77,028	3,051	27.0	160.3	1,050	1,248
	2010						
11	2007	29,760	2,709	28.0	163.1	1,050	1,126
	2008	37,000	2,240	24.3	152.2	1,050	1,482
	2009	10,580	3,076	26.0	162.0	1,050	1,167
	2010						
12	2007	10,200	2,236	28.9	175.1	1,050	1,254
	2008	30,000	3,069	25.4	178.1	1,050	1,536
	2009	11,000	2,813	26.5	180.6	1,083	1,212
	2010						
계	2007	449,760	29,838	311.6	1,945.7	1,074	1,014
	2008	584,128	35,296	329.5	1,911.2	1,078	1,336
	2009	517,576	35,260	304.6	1,944.4	990	1,361
	2010						

※2008년 1월부터 종계입식수에 브라운너 포함.

※2008년 4월 산란중계는 32,600수 분양되었으나 AI 위험지역에 포함되어 전량 살처분됨.

※2009년 11,12월 실용계 생산수 변경